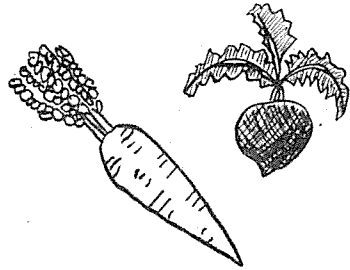


김장철에 알아야 할 기생충 관리

김장은 이렇게 담가야 기생충이 없다.

강 신 영



기생충 감염상태는 그나라 국민 보건의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으며 또한 문화적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우리들이 알고있는 기생충중 대표적인 회충의 감염률은 보사부 및 한국기생충 박멸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1971년 55%에서 약 1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10%내외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염률저하는 간접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힘입은 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는 국민각자가 기생충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 적절한 시기에 부단히 구충제를 복용하였다는 데에 기인할 수 있겠다.

인체에서 중요시 다루는 토양을 매개로 하는 기생충은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동양모양선충, 이질아

메바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회충 및 편충의 감염률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0~20%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생충 감염상태는 선진국의 기생충감염상태가 거의 0%인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도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0%까지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은 옛부터 채소를 부식으로 애용하여 왔으며 특히 김치는 빼놓을 수 없는 식단이다. 따라서 이들 채소

류는 인체의 중요한 기생충의 감염원이다.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면 배추, 무우, 파 등의 채소류에 부착된 기생충란 검출양상을 보면 수집된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10~50%로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토양내 기생충란 검출률도 채소류의 검출률과 비례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류재배에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겠다.

회충란의 경우 토양내에 뿌려진 충란은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양에 채소류를 계속 재배한다면 재배지에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채소가 공급된 도시사람에게 까지도 감염원의 역할을 한다.

흔히 보통 흙이나 진흙에 재배되는 배추, 무우, 파, 상치 등의 채소류의 경우 흙의 성질상 회충란이 장기간 보존되어 회충감염원의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인분을 비료로 사용 할때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모래가 섞인 흙에서 재배되는 파, 부추 등의 채소류 일때는 오히려 십이지장충의 감염을 조장할 수 있다.

11월, 12월은 각가정의 주부들

이 겨울맞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매우 분주한 시기이다. 더우기 우리나라 고유의 김장철이 끼어 있기 때문에 손놀림이 부산한 계절이다.

이때 각가정은 어느때보다 대량의 채소류를 다루기 때문에 기생충에 대한 염두를 가져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회충의 경우, 그 감염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12월에서 그 다음해인 3월사이로써 이때의 감염은 2~3개월전인 김장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을 생각할때 김장철에 사용되는 채소류를 시장에서 구입할때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채소류의 겉에 붙어있는 흙이나 또는 기생충란이 직접 손에 묻을 경우가 생긴다.

이때 손을 깨끗이 씻지않고 음식물을 조리 한다면 또는 어린아이와 접촉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까지, 또는 모든 가족이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 하겠다.

다음으로 채소류에 부착되어 있는 충란은 소독제 등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흐르는 수도물에 여러번 씻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이때 함께 사용되는 양념거리인 파, 마늘, 생강등도 여러번 물에 씻어야만 된다.

회충감염은 성인에서 1~2 마리 정도 기생할때는 대부분 증상없이 경과하지만 대량감염될 때는 장관을 막히게 하고 심지어는 장벽을 뚫고나가는 경우도 있다.

어떤 예에서는 간이나 뇌에 들어가 매우 위험한 증상을 유발시키는 예도 보고되었다. 특히 1~5세의 어린아이에서 작별히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발육이 한창 왕성한 연령이기 때문에 회충이 영양물을 빼앗아가 발육장애나 영양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십이지장충(채독벌레)은 충체 1마리당 약 0.5cc의 피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대량감염되면 빈혈을 일으키는 무서운 기생충이다.

이렇듯 토양이 매개하는 기생충 감염에 있어서,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여 그 결과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채소류에는 충란들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 경제력이 향상된다면 인분대신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청정채소 재배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며, 시골지역에서 부득이한 경우 인분을 비료

로 사용할 때 곧바로 비료로 사용하지 말고 적어도 3개월이상 방치하도록 하여 인분내에 있는 각종 기생충란을 사멸토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퇴비를 권장하는 때에 맞추어 인분을 퇴비에 넣은다음 채소류를 재배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손가락에 부착된 기생충란은 입을 통하여 감염이 성립됨으로 외출 후라든가 식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버릇을 갖는것이 필요하다.

특히 취학전의 어린아이일 경우 부모가 작별히 유의하여 손을 씻어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각가정의 주부들이 김장철에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의 기생충감염률은 현상태보다 더 감소되어 개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문화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될것이며 멀지않아 선진국대열에 발돋움 할 수 있으리라.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 전임강사,
보건학 석사)

가을은 驅虫의 계절,

너도나도 기생충검사 받자

● 한국기생충박멸협회 ●